

朝鮮建國初 印書文化的 意義

李 姬 載*

目 次

- | | |
|--------------|--------------|
| I. 序 | 2. 太宗朝의 印書事業 |
| II. 前提條件 | IV. 評價 및 意義 |
| III. 印書事業 | V. 結 |
| 1. 太祖朝의 印書事業 | |

I. 序

本考에서 다루려는 時期인 朝鮮建國初란 太祖太宗年間을 뜻하며 韓半島의 印書文化가 확실한 盤石위에 섬과 동시에 나아가 世界印刷史에 당당한 한 몫을 차지하여 그 意義가 크게 평가되는 중대한 시기이다.

어느 時代나 그 印書文化의 特性은 있게 마련이지만 世界印刷史를 다루는 東西洋의 各種 著述에 반드시 踴躍되는 太宗年間の 癸未字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王朝의 수립이라는 혼란한 社會속에서도 이어진 太祖年間の 印書文化에 대해서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 時期의 印書事業에 대해서는 歷史的 측면에서 단편적으로나, 또는 그 自體에 비증을 두어 踴躍한 論文들이 있지만 그것의 印刷文化的 意義를 캐내는 데는 다소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 本考는 이 점을 감안, 太祖太宗 各時代의 印書事業을 總括的으로 考察함과 동시에 世界印刷史 속 에 이 時代가 갖은 比重과 意義 및 評價에 보다 重點을 둬으로서 그 重要性을 再認識하고자 한다.

* 淑明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助教授

II. 前提條件

한 時代의 印書事業의 前提條件은 그 時代의인 측면과 物理的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前者는 朝鮮建國初 자체의 社會的인 與件이라든가 그 印書事業으로 脈을 잇게 한 高麗末의 印書文化등을 말할 수 있겠고 [後者는 구체적으로 印書時 필요한 物質的인 문제, 즉 作業場이라든가 基本材料를 뜻한다.

本考에서 麗末의 印書事業에 대한 장황한 언급은 불필요한 것이겠고, 다만 周知하는 바와 같이 高麗朝 3次에 걸친 大藏經 木板의 雕造라든가 일반적으로 高宗21年(1234)경으로 연대를 잡고 있는 「古今詳定禮文」 50卷, 1972년 세계 도서의 해를 맞아 파리 國立圖書館에서 確認¹⁾된 「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등의 木板 또는 活字本의 印書가 朝鮮朝에 구체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음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당시의 社會的인 與件은 王朝가 전환되는 큰 變革期로 東西洋 共히 이같은 轉換期에 印刷의 革命이 일어났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 부분에 대해 Maurice Audi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文化的 普及가 가능치 않았던 世界의 北半部의 두 地域인 韓國과 라인江邊에서 거의 같은 時期에 活字印刷의 發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이 두 發明은 의심할 바 없이 改革의 움직임으로 가득차 있던 社會相과 거의 연결되고 附隨된 것이다. 두 發明間에 全的인 類似點이 거의 같은 時期에 성립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을 생각할 때, 어느 時代를 통해서건 거리는 비록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人間集團 사이에는 미묘하고 신

1) 지금껏 發見 또는 發掘이라고 표현을 해온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이미 Maurice Courant의 *Bibliographie Coréenne* 補遺版(Paris, Ernest Leroux, 1901) no 3738에 수록되어 그 존재가 들어나 있었고, 파리의 국립도서관 동양본과에 BN, Mss. coréen 109로 기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한국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바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나 발굴이 아니었으며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존재의 확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전의 拙著에도 단어의 선택여부가 마땅치 않아 발견 또는 발굴이라는 표현을 했으나 이 기회를 통해 오류를 시정하는 바이다.

기한 紐帶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²⁾

그는 또 이 「奇異한 一致」가 歷史的으로는 아무런 結束이 없이 分離된 것이며, 그들은 다만 「平行的 文化의 跳躍」(essors culturels parallèles)이었다고 다시 한번 兩發明의 相互連結性을 否認하고 있으며³⁾ 이는 바로 歐美學界의 意見을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다.

오랜 世紀를 거치면서 종이의 製造法이나 木板印刷術이 東洋에서 西洋으로 流入되었다는 사실이 東西洋 學界에 定說로 성립된 데 반해 간혹 우리나라 일부에서 논의되는 韓國活字의 西歐로 향한 影響說은, 적에도 구체적인 그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전혀 西洋則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15C 以前の 韓國活字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없이 무시하고 있는 歐美學界의 誤謬는 전반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소위 mass media의 情報革命으로 간주되는 活字의 發明이 大量 普及化에 기본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역시 1403年の 癸未字가 Gutenberg 活字와 相互比較된다는 것은 合理的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活字의 出現이 人類集團들의 文化發達史的 同質性을 말해 주듯 그 出現을 본 兩社會의 樣相도 Audin의 지적대로 “改革의 움직임으로 가득차 있었던”⁴⁾였다. 그것은 단지 高麗朝에서 朝鮮朝로 넘어가는 王朝交替라든가 敎權으로부터 人間性의 回復을 되찾으려는 르네상스나 宗教改革이라는 어느 한 時代的 變化로서만이 아닌 약 10C에 걸쳐 전개되었던 中世의 終末을 告하게 되는 時點이었다는 데 더 큰 意義가 있다.

역시 Audin의 표현을 빌리면 韓國과 유럽에서의 印刷術의 發明은 世界的

2) “Il est curieux de constater que l'invention typographique, sans laquelle nulle vulgarisation culturelle n'était possible, s'est faite à peu près à la même époque aux deux extrémités du monde boréal: en Corée et sur le Rhin. Ces deux inventions sont à peu près concomitantes et correspondent sans nul doute aux mouvements comparables de sociétés en pleine évolution. Comme on ne peut admettre qu'un rapport direct ait pu s'établir en si peu de temps entre les deux inventions, il apparaît que des liens subtils et mystérieux doivent, de tout temps, exister entre les groupes humains, si éloignés qu'il soient.” Maurice Audin, *Histoire de l'imprimerie*, (Paris; A. et J. Picard, 1972) p. 31.

3) *ibid.*, p. 94.

새로운 時代를 展開하였으며 《하늘로 부터 내려온 藝術 중의 藝術이고, 黃金期와 祝福받은 時期의 象徴이며, 最上의 水準이자 빵과 포도주의 日用보다도 더욱 崇高한 것이다》라고 까지 칭송하고 있다.⁴⁾

이같은 찬사는, 말하자면 中世에서 近世로 바뀌는 時期에 活字의 發明이 이루어 졌다가 보다는 活字의 發明이 近世를 여는데 결정적 役割을 했기 때문에 더욱 부여되는 것이며, 비록 그 以後 世紀를 거둬하면서 몇 몇 緣由로 因하여 韓國의 印刷文化가 劣勢에 들긴하였으나⁵⁾, 韓國의 癸未字가 그 役割을 담당했다는 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느 칭송 이상으로 더 價値있는 일이라 하겠다.

癸未字의 鑄造가 先代로부터의 印書文化의 影響이라는 점은 이미 前述했거니와 物理的인 측면으로 볼 때도 다를 바 없다.

癸未字의 탄생을 보게 한 鑄字所의 기원은 이미 木板 및 活字印書가 시작된 麗末의 書籍店⁶⁾, 書籍鋪⁷⁾, 書籍院⁸⁾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연관으로는 太祖元年 7月 文武百官의 制度를 제정하면서⁹⁾ 그 名稱을 그대로 답습한 書籍院에서 찾을 수 있다.

書籍院掌經籍印出事 令一從七品 丞二從八品 錄事二從九品 司吏二¹⁰⁾

에서 보듯이 書籍院은 經籍을 印出하는 일을 맡았는데 職制로서는 令 1명 從 7品. 丞 2명 從 8品, 錄事 2명 從 9品, 司吏 2명을 두었다.

글자 그대로 鑄字로서 書冊을 印出하는 鑄字所는 癸未字를 新鑄하며 설치되었으니

4) “descendant du ciel, l'art des arts, symbole de l'âge d'or et du temps de la félicité, et qui est d'un ordre supérieur et plus divin que l'usage même du pain et du vin.” loc. cit.

5) Lee Hee-Jae, *La typographie coréenne au XVè siècle*, (thèse de doctorat de 3è cycle, l'Université de Paris VII, 1981) pp. 255-265.

6) 「高麗史」, 卷77志 卷百31 官諸2 司都監各色條

7) 鄭道傳, 「三峯傳」, 卷 1, 置書籍鋪詩並序

8) 「高麗史」, *ibid.*, 書籍店條

9) 「太祖實錄」, 卷 1, 45(=張數) r.(=recto)~49 v.(=verso)

10) 「太祖實錄」, 卷 1, 49r.

庚申新置鑄字所 上慮本國書 籍鮮少 儒生不能博觀 命置所以藝文館大提學李稷·摠制閔無疾·知申事朴錫命·右代言李膺爲提調 多出內府銅鐵 又命大小臣僚自顯出銅錢以支其用¹¹⁾

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書籍院이나 鑄字所의 印刷文化史의 價値는 後述될 意義 및 評價에서 再論하고 여기서는 當代의 客觀的인 記錄만을 살피기로 한다.

太宗朝의 鑄字所는 癸未字의 鑄造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관한 古記錄은 上記 實錄과 權近의 鑄字跋외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 후에도 그 名稱이나 소속등은 수차 변경, 환원되어, 朝鮮朝 印刷文化가 절정에 있었던 世宗年間¹²⁾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찬가지 실정이다.

이같이 주목할만한 별다른 기록이 없고 經國大典에 정식으로 편입된 衙門이 아니고 임시로 특설된 기구¹³⁾라 하여 鑄字所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印刷史전반에서 太宗~世宗朝의 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한다면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上曰 鑄字所自初設立爲關內衙門 差官督役 皆令承政院主之 而可在關外 往來啓稟事多稽緩 已令移於關內 令承旨二人主之 其舍鑄字所 唯置木板 令校書館掌之……¹⁴⁾

의 世宗鮮의 기록에서 볼 때 鑄字所는 처음 설립 당시부터 대궐안의 衙門으로 삼아 官員을 임명하여 役事를 독려케 하였으며 모두 承政院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官司가 關밖에 있었으므로 印書業務가 대폭 증가된 世宗朝에 들어와 往來하며 啓稟함이 어렵다 하여 官司까지도 關內에 두고¹⁵⁾ 前 鑄字所官司에는 木板만을 남겨놓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太宗朝의 鑄字所는 癸未字 및 癸未字本을 탄생시킨 중요한 關內衙

11) 「太宗實錄」卷 5, 7r.

보다 상세한 內容은 權近의 「陽村集」卷22, 跋語類, 鑄字跋에서 볼 수 있다.

12) 拙著, “世宗年間 印書事業에 관한 綜合的 考察”, 「韓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魯山劉元東博 士 華甲紀念論文集, 서울: 正音文化社, 1985) pp. 181-208.

13)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74) p. 352.

14) 「太宗實錄」, 卷 70, 3r.-v.

15) *Ibid.*, 卷 69, 24v.

門이기도 했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世宗朝印刷文化의 根幹을 이루는 中心地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서를 만드는 직접적인 재료인 종이에 대해 살피기로 하자.

본디 우리나라의 종이는, 그 流入年代가 확실치는 않으나, 그 質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미 중국으로 부터 白氈紙라는 지칭을 받게 되었으며¹⁶⁾ 朝鮮初의 제반 手工業 중에서도 製紙業은 가장 발달된 부분의 하나로서 韓紙는 특히 楮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¹⁷⁾

종이에 관한 太祖年間의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建國初의 혼란시기에 종이에 까지 배려가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太宗朝에 들어서면 楮貨 또는 致賻에 관한 것이 위주이기는 하나 비교적 많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太宗初부터 關內에 鑄字所를 설치하고 鑄字印書를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종이는 건국이래 太宗 12년까지 일반적으로 各道에서 만들어 중앙으로 들어오는 체제를 이루었던 것 같다.

太宗 12年 11월에 들어오면

乙酉司憲府上二條……且楮貨之紙 各道分造以納 故其厚薄不同 揀擇之幣亦由此 乞於京畿別置造紙所 令司贍一員監之 使均厚薄 命下政府議之¹⁸⁾

다 하였으니, 즉, 各道에서 나누어 만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楮貨종이의 厚簿이 같지 않아 가려내야 하는 폐단이 생기므로 京畿에 따로이 造紙所를 설치하고 司贍 1員으로 감독케 하여 그 厚簿을 고르게 하자는 司憲府의 啓請과 政府의 論議가 있었다. 그 직전에도 이미 韓尙敬에 의해 楮貨紙의 厚簿精麤가 같지 않고 모두 厚紙만을 좋아하니 서울 안에 한 곳에서 만들도록 하자는 請願이 있었던 바였다.¹⁹⁾

16) 三柳軒雜識 寫本에 “高麗紙 潔白堅強” 廣木物譜 寫本 文字條에 “白氈紙印白面紙 高麗者”라 이르고 있다.

17) 李光麟, “李朝初期의 製紙業”, 「歷史學報」10輯, 1965, p. 1.

18) 「太宗實錄」, 卷 24, 26v.

19) *ibid.*, 卷 23, 13r.

비록 이같은 청원들이 楮貨紙라는 표현에 국한되고 司贍署의 1員이 감독하는 작은 기구였기는 하나 世宗朝 이후의 활발한 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종이의 사용량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紙地之品 以寫表箋而謂之表紙 寫奏聞而謂之奏紙 寫書狀而謂之狀紙 今也不分名實 中外公私皆用厚紙 以致製造之際民受其弊 故歲在辛巳己不禁令 然因仍未革弊復如前 矧令又有朝廷之需 製造之費什倍前日 不加抑恐或不繼……²⁰⁾

分命各道 造進獻紙一萬張²¹⁾

紙之爲用廣矣 凡公私書啓大小喪葬 莫不用之 況今國家又以楮爲貨乎 臣等竊見 大小民家有楮田者 百無一二 而其僅有者 又爲所在官司所奪 利不及已而害且隨之 故非惟不種 或有斬刈而去之者 是可歎也 且上國以本朝之紙爲美 或來求之 是亦不可慮也 臣等願令各道大戶則二百條 中戶一百條 小戶五十條 限來年二月一皆種之 令監司差人考察 有不如法者 貶徵楮貨 罪及守令會有楮田 不在此限²²⁾

上述中 中外公私에서 사용하는 종이가 많을 뿐 아니라 朝廷의 需要도 그 製造 비용이 전날보다 10배 정도나 많아 졌다는 사실, 各道에 나누어 종이 一萬張씩을 進獻하라는 朝廷의 명령, 종이는 쓰이는 곳이 광범한데 원료가 되는 楮를 심지 않거나 심지어 베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各道로 하여금 大戶는 2百株, 中戶는 1百株, 小戶는 50株를 심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朝廷의 論議등은 당시 종이의 소모량이 상당했음을 말해 주는 부분들이다.

역시 上記 引用文에 따르면 종이의 種類나 品質도 다양해서 그 용도에 따라 表箋을 쓰는 表紙, 奏聞을 쓰는 奏紙, 書狀을 쓰는 狀紙등으로 나뉘고 그 품질에 따라 厚紙, 簿紙, 白奏紙, 常(奏)紙로 나뉘는 등 量과 함께 質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두 厚紙만을 좋아하는 까닭에 厚紙 使用의 禁止令을 내리기까지

20) *ibid.*, 卷 14, 36r.

21) *ibid.*, 卷 15, 14r.

22) *ibid.*, 卷 20, 26r.

23) 上記 引用 註(20)외에 *ibid.*, 卷 28, 39v.에도 이 내용이 있다.

이르렀으며²³⁾ 紙質의 羸惡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고하지 않았다 하여 長興 庫使崔士柔등 6인을 義禁府에 내리는 등²⁴⁾ 종이의 量質面에서 개선을 꾀하는 조정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그 紙質은, 先代에서나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에서 환영을 받았으니 중국에서 朝鮮의 종이를 좋다고 하여 간혹 와서 구한다는 上記 引用²⁵⁾ 외에도 중국에서 온 使臣에게 종이 1萬張을 바치고 두 사신에게 厚紙 40張씩을 주니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으며²⁶⁾

日本國使送客人 請印大般若經 客人賫紙 墨以至 然其紙不堪印經 命造紙印給之²⁷⁾
에서 보듯이 日本에서도 客人을 보내 大般若經을 印出하기를 청하면서 종이의 먹을 가지고 왔으나 그 종이는 經을 인쇄할 수 없었으므로 명하여 종이를 만들어 인쇄해 주었던 것이다.

이렇듯 당시의 量質의 종이는 그 가격 또한 상당했던 듯, 租稅의 대상으로서 상호비교되어 추정할 수 있다.

假如今以楮貨一張買紙六十張 一升米買紙六張 着稅之法 木綿一匹收紙三十張 正五升布收紙十張……²⁸⁾

에서 보면 楮貨一張과 종이 60張, 1升米와 종이 6張, 木綿 1匹과 종이 30張, 正五升布와 종이 10張등이 서로 견줄만한 가치였던 것 같다.

이상 圖書를 이루는 직접적인 材料로서 朝鮮建國初의 종이에 관한 狀況을 살펴 보았다. 이외에도 物質的인 前提條件으로서 墨이라든가 金屬材料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당시의 기록이 거의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朝鮮朝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註12의 引用論文을 참조하기 바란다.

Ⅲ. 印書事業

太祖一定宗一太宗年間을 거치면서 인쇄된 木板 또는 活字本들은 이미 많

24) *ibid.*, 卷 28, 30v.

25) 註(22).

26) *ibid.*, 卷 34, 8v.

27) *ibid.*, 卷 32, 22r.

28) *ibid.*, 卷 29, 42v.

은 既存研究에서 거의 모두 밝혀져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論文 전개과정상의 흐름을 위해 이들을 客觀的으로 종합하는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二. 太祖朝의 印書事業

太祖가 卽位元年 7月 文武百官의 制度를 정하면서 書籍院으로서 經籍印出의 업무를 官장케 했다는 사실은 이미 前述한 바와 같다. 이와 함께 그는 또한 判事 2명 正 3品, 監 2명 從 3品, 少監 2명 從 4品, 丞 1명 從 5品, 郎 2명 正 7品, 著作郎 2명 正 8品, 校勘 2명 正 9品, 正字 2명 從 9品을 둔 校書監(太宗 1年 7月 校書館으로 改稱²⁹⁾)으로서 文籍·圖書와 祭薦의 視疏등의 일을 官장케 하여³⁰⁾ 즉위 초부터 조선조 도서문화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같은 제도적인 면 외에도 太祖 자신이 본디부터 儒術을 존중하여 비록 軍中에 있더라도 휴식할 동안에는 經史를 토론했으며³¹⁾ 經筵에서는 수시로 大學衍義를 비롯한 많은 도서를 講論케 하였다.

또한 崇儒抑佛로 建國理想을 삼았다고는 하나 大藏經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니 太祖元年 12月에는 僉書中樞院事 鄭摠에게 명해 大藏經 印出의 願文을 제작케 하고³²⁾ 同 2年 10月 演福寺五層塔에 大藏經을 安置하고 王師 白超에게 講說을 주관시켰다.³³⁾ 同 4年 10月에는 檜巖寺에서 人天眼目의 經板을 雕刻했으며 同 6年 7月에는 王師 無學이 題한 註心賦를 覆刻하였다.³⁴⁾ 또 同 7年 5月에는 龍山江에 幸하여 江華島 禪源寺로 부터 大藏經 木板을 운반하여³⁵⁾ 서울 西門 밖 支天寺에 옮겼다가 곧이어 陝川 海印寺에 移藏케 하였으니³⁶⁾ 어쩔 수 없이 천여년을 내려온 佛敎라는 精神文化를 朝鮮朝에서도 엿볼 수 있다.

29) 『太宗實錄』, 卷 2, 2r.

30) 『太祖實錄』, 卷 1, 47v.

31) *ibid.*, 卷 1, 21r.

32) *ibid.*, 卷 3, 20v.

33) *ibid.*, 卷 4, 11v.

34) 金斗鍾, *op. cit.* p. 131.

35) 『太祖實錄』 卷 14, 2r.

36) 金斗鍾, *loc. cit.*

太祖는 또한 많은 도서들을 撰進케 하여 결과적으로 印書文化의 발전에 공헌을 하였으니 元年 趙浚등에게 高麗史 修撰을 명하여³⁷⁾ 同 4년 완성시킨³⁸⁾ 것을 비롯하여, 2年 鄭道傳의 四時蒐狩圖³⁹⁾, 3年 權仲和등의 地理秘錄撮要⁴⁰⁾와 鄭道傳의 朝鮮經國傳⁴¹⁾, 4년 鄭道傳의 經濟文鑑⁴²⁾, 鄭渾등의 貞觀政要 校正撰進⁴³⁾, 7年 趙庸등의 四書切要⁴⁴⁾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刊行된 것을 보면 太祖 4年 書籍院이 大明律直解 百여본을 白州知事 徐贊이 만든 刻字(木活字)로서 印出했고⁴⁵⁾ 同年 鄭津에게 頒賜한 開國原從功臣錄卷을 木板本으로 刊했으며⁴⁶⁾ 同 6년 10월 功臣都監에서 司宰副令 沈之佰에게 木活字로 찍은 開國原從功臣錄卷⁴⁷⁾을 내리고 있다. 역시 同 6年 經濟六典⁴⁸⁾과 權近의 入學圖說등이 刊行되었다.⁴⁹⁾

이 시기의 木板과 木活字는 前者가 많은 部數를 위해, 後者가 적은 部數를 간편히 찍기 위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太祖 당시에 印書文化 자체가 크게 도약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특히 木活字의 사용은, Gutenberg의 活字發明이 Laurens Janszoon Coster의 木活字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⁵⁰⁾과 견주어 볼 때, 癸未字와의 연관성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첨부하여 定宗朝의 것을 보면 1년 鄉藥濟生集成과 牛醫方·馬醫方이 合刊

37) 「太祖實錄」, 卷 2, 10r.

38) *ibid.*, 卷 7, 2v.

39) *ibid.*, 卷 4, 6v.

40) *ibid.*, 卷 5, 5v.

41) *ibid.*, 卷 5, 21r.

42) *ibid.*, 卷 7, 13v.

43) *ibid.*, 卷 8, 5r.

44) *ibid.*, 卷 15, 11r.

45) 「大明律直解」金祇跋.

46) 鄭津의 同錄卷.

47) 沈之佰의 同錄卷, 國寶 403호.

48) 「太祖實錄」卷 12, 12r.

49) 權近 「入學圖說」太祖 6年 晉陽府刻本.

50) Maurice Audin, *op. cit.*, p. 92.

Svend Dahl *Histoire du livre*, Paris: Edition Poinat, 1967, p. 94.

되었고⁵¹⁾ 高峰和尚禪要가 智異山 德奇寺에서 開板되어 重刊되었으며⁵²⁾ 同 2년에는 柳巷先生詩集이 간행⁵³⁾되어 짧은 在位기간에서도 印書文化의 맥을 이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2. 太宗朝의 印書事業

太宗朝의 印書事業은 절대적으로 癸未字 및 癸未字本の 出現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諸般 歷史的인 事實은 물론 形態書誌學的인 側面에서의 考察까지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는 千惠鳳 教授의 “癸未字와 그 刊本”⁵⁴⁾을 반드시 참조하기 바람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사실만을 나열하기로 한다.

太宗 3年 2月 우리나라의 도서가 적어 儒生들이 널리 볼 수 없음에 鑄字所를 새로 설치하고 數月에 거쳐 10萬여개의 範銅爲字를 만들었다는 太宗實錄 및 權近의 鑄字跋의 기록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太宗이 이렇게 儒生들로 하여금 誦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에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은 그 직후

分賜經書於文臣 上嘗語金科曰 各道所獻書冊藏在王府 終無用也 分賜文臣何……⁵⁵⁾

의 기록에서도 능히 짐작되는 바이다.

鑄字所에서의 活字鑄造 이후 地方을 제외하고 印書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經濟六典」: 太宗 4年(1404) 9月, 이에 대한 議政府의 刊行 요청이 있었는데⁵⁶⁾ 太宗 5年 6월에 卒한 記事 속에 「管使檢詳條例司 衰集國條憲章條例 擬括成書 名曰經濟六典 刊行中外」라 했으니⁵⁷⁾ 太宗 4~5年 사이에 간행되었

51) 同書跋.

52) 同書刊記.

53) 同書跋.

54) 千惠鳳, “癸未字와 그 刊本”, 『書誌學』 第6號(1974), pp. 1-27.

55) 『太宗實錄』 卷 5, 26r.

56) *ibid.*, 卷 8, 12r.

57) *ibid.*, 卷 9, 26v.

음을 알 수 있다. 또 同 12年 4月에는 「經濟六典」의 元集詳節 3권과 續集詳節 3권을 更定한 후 印出頒行할 것이 전의되어 이에 따랐으며⁵⁸⁾ 同 13年 2月에는 題名중 經濟가 俚語라 하여 元六典으로 고치고 上王 즉위 이래의 經濟가 될만한 것을 續六典撰修所⁵⁹⁾에서 엮어 「續六典」이라 하여 鑄字所에서 印出頒行하였다.⁶⁰⁾

「十一家註孫子」: 이는 日本 宮內廳書陵部所藏의 丙子字本이 그 底本인 癸未字本の 刊記(永樂 7年, 1409)와 權近의 鑄字跋을 그대로 실고 있어 癸未字本이 있었음을 알려준 것이다.⁶¹⁾

「十七史」: 「…造華紙以進 下鑄字所 印十七史 賜得財米五石 綿布四匹 令紙工傳習」이라고 한 太宗 12年 6月의 기록⁶²⁾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正史의 十七史가 아닌 卷 16, 17이 現存하는 「十七史纂古今通要」로 보여진다.⁶³⁾

「大學衍義」: 同 12年 10月의 「鑄字所引大學衍義以進 賜工人七米各一石」⁶⁴⁾에 근거한 것이다. 太祖以來 全朝鮮朝를 통해 모든 임금의 가장 많이 講讀한 것이 「大學衍義」이고 보면 그 刊行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大明分類律」: 太宗 15年 5月 「下讀法 令刑曹啓 京外愚民不知律文 陷於罪辜 可爲矜恤 今刊大明分類律 乞於京外五部外方各官頒行……」⁶⁵⁾이라 하였으니 즉, 서울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律文을 알지 못하여 죄고에 빠지니 이를 불쌍히 여겨 「大明分類律」을 刊行, 서울의 五部와 지방의 各官에 頒行하였던 것이다.

「鍼灸銅人圖」: 太宗 15年 10月 明使에 의해 皇帝가 賜한 銅人圖를 가져온 것과⁶⁶⁾ 때 맞추어 12月 鍼灸銅人圖를 刊行하여 中外에 頒布했다⁶⁷⁾.

「乘船直指錄」: 太宗 16年 3月의 「頒乘船直指錄三百本於外方各道 鑄字所所

58) *ibid.*, 卷 23, 25r-v.

59) *ibid.*, 卷 14, 17v.

60) *ibid.*, 卷 25, 10r.

61) 千惠鳳, *op. cit.*, pp. 21, 27.

62) 「太宗實錄」卷 24, 1v.

63) 千惠鳳, *op. cit.*, pp. 16-18.

64) 「太宗實錄」卷 24, 17r.

65) *ibid.*, 卷 29, 25v.

66) *ibid.*, 卷 30, 28r.

67) *ibid.*, 卷 30, 40v.

印也」라고 한 記錄에 따른 것이다.⁶⁸⁾

「東國略韻」: 同 16年 5月 「命印左議政河崙撰進東國略韻 頒諸中外」의 기록이다.⁶⁹⁾

이상에서 말한 도서중 鑄字所에서의 印出發行이 확실하여 癸未字本임을 명확히 한 것은 太宗 12년의 「十七史」 및 「大學衍義」와 同 13년의 「元六典」 「續六典」, 그리고 同 16년의 「乘船直指錄」 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지 刊行 또는 印出했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太宗 3年 2月 鑄字所를 설치하여 數月후 癸未字가 출현한 이래 同 12年의 「十七史」 이전까지 癸未字印本이 全無할리는 만무하므로 일단 實錄에서의 印出 또는 刊(行)이라는 표현은 癸未字本으로 보아도 무난할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太宗在位 18년까지 약 15년에 걸쳐 中央에서 印書된 上記圖書와 지금까지 癸未字本으로 實査되었거나 그것의 覆刻本으로 추정된 7種의 도서를 합한다면 一日 印出量 數紙⁷⁰⁾의 초기 技術로서 그 기간동안의 그 숫자는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上記 7種의 圖書는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卷 4, 5, 6의 3冊, 「宋朝表賤總類」 卷 7, 1冊, 「十七史纂古今通要」 卷 16, 17, 2冊,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卷 5-6, 1冊, 「陶隱先生詩集」 3卷 1冊등 5種 8冊과 覆刻本으로서 그 底本의 刊記가 나타나 癸未字本이 존재했었음을 말해 주는 「音註全文春秋話例始末左傳句讀直解」와 「禮記淺見錄」의 二種을 말함이다.⁷¹⁾ 그중 간행 년대가 명확하거나 추정할만한 것은 陶隱先生詩集 太宗 6年⁷²⁾, 禮記淺見錄 太宗 7年⁷³⁾, 그리고 앞서 언급된 十七史纂古今通要 太宗 12年이며 나머지는 形態的인 특징으로서 확인된 것이다.

68) *ibid.*, 卷 31, 25v.

69) *ibid.*, 卷 31, 30r.

70) 「世宗實錄」 卷 11, 15v.

71) 千憲忠, *op. cit.*, pp. 13-20.

_____, 「韓國古印刷史」(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6) pp. 90-91.

72) 李滉仁, 「陶隱集」 卷 1, 序.

_____, 「陽村集」 卷 20, 序類, 陶隱李先生崇仁文集序.

73) 「大宗實錄」 卷 12, 35v.

千憲忠, “癸未字와 그 刊本” pp. 14-15, 26.

이상 中央의 癸未字本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것 외에 지방에서 板刊, 重刊된 것들을 연대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⁴⁾

太宗 2年(1402) 7月, 江陵에서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刊行, 同 3年 8月 平壤府에서 「朱文公家禮」 十百五十部를 印하여各司에 頒賜, 晋山에서 「春秋諸傳會通」 重刊, 同 5年 3月 全羅道 兜率山 安心寺에서 「妙法蓮華經」 刊行, 同 11年 6月 高敞縣 文殊寺에서 「行願品」「金剛般若」「川老解般若」「心經大願解」「空禪」「大願和尚注心經」「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등이 重刊, 同 13年 3月 海印寺에서 大藏經을 印刷하여 開慶寺에 藏置, 同 15年 5月 安巖寺에서 「金剛般若波羅蜜經」 刊行, 同 17年 5月 慶州府에서 「帝王韻紀」 刊行, 義興縣에서 「鄉藥救急方」 重刊, 同 18年 3月 濟州牧에서 「禮記淺見錄」 覆刻, 5月 洪州에서 「疑獄集」 刊行등을 말할 수 있다.⁷⁵⁾ 또 地方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地方本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太宗 8年 11月の 華嚴經 印行, 同 16年 2月の 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重刊과, 中央本으로 보여지는 板刊된 養蠶方⁷⁶⁾이 있다.

이밖에도 太宗年間の 圖書文化로서 前朝史를 비롯한 많은 도서의 撰進이라든가 中國 및 日本과의 交流관계 등을 논의할 수 있으나 그 事例가 비교적 많고 印書와의 직접적인 큰 관련은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IV. 評價 및 意義

이 時期의 印書文化의 意義나 評價는 이미 前述한 바, 大量普及의 차원에서 첫 金屬活字라 할 수 있는 癸未字의 出現으로 集約되고 대표되는 것이지만, 단순한 物理的인 측면이나 역사적 事實의 叙述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를 다룰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74) 기초자료로서 尹炳泰編, 「韓國書誌年表」(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72) pp.10-12를 참조했음.

75) 이상의 도서중 太宗 3년의 「朱文公家禮」와 同 13년의 「大藏經」은 각각 「太宗實錄」 卷 6, 9v.와 卷 25, 27r.에 기록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同書의 跋文이나 刊記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다.

76) 前者 2種은 各書跋 後者는 「太宗實錄」 卷 33, 41r에 기재되어 있다.

年前的 논문에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De Vinne의 “印刷術의 發明者는 종이를 발명하지 않았으며 木板術을 만들지도 않았다. 紙面上의 印刷나 印刷된 書籍을 刊行한 첫 試圖者도 아니다. 첫번째 印出者도, 첫번째로 活字를 構想했거나 製造한 사람도 아닐 것이다. 그 첫 발명자는 活字鑄型(type mold)을 발명하여 가장 처음으로 作業을 實際的이고 實用的으로 만든 사람이다.”⁷⁷⁾라는 말은 癸未字의 意義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T.F. Carter 역시 “活字鑄型은 活字印刷術 發明의 열쇠이다. 그리고 活字鑄型을 발달시킨 것은 韓國人이며 바로 그점이야 말로 韓國 印刷가 갖는 重要性이다”⁷⁸⁾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13C 전반의 活字印刷本의 기록이 전해지고 1377년의 直指心體要節이 존재하기 때문에 《韓國人의 活字鑄型》의 시초는 癸未字보다 2C 가량 앞서야 하겠으나, 癸未字로 부터 본격적인 活字鑄造와 活字本의 인쇄가 시작되고 확실한 活字鑄造方法 자체가 전해지는 한 活字鑄型의 초기 試圖의 비중을 癸未字에 두는 것은 무리가 아닌 듯 싶다.

初期 東西洋 活字의 鑄造方法에 대해서는 本人의 “東西洋 初期活字 印刷方法에 관한 比較研究⁷⁹⁾의 참조가 반드시 先行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확실히 할 점은 東西洋에서 모두 活字鑄型 이전에 活字가 사용되거나 시도되고 있었으나 活字鑄型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 했다는 사실이다.

活字鑄型 이전의 활자로서 東西洋에서 공인된 것으로는 宋代 1041~48年

77) “The inventor of printing did not invent paper and did not originate engraving on wood. He was not the first to print upon paper, he was not the first to make printed books, it is not certain that he made the first press, it is not probable that he was the first to think of or make movable type. What he did was to invent the type mold—the first therefore to do practical and useful work.”

Theodore L. De Vinne, *The invention of printing*, (New York; 1876) pp. 67-68.

78) “The type mold then was the key to the invention of typographic printing. And it was the type mold that the Koreans developed. That is the significance of Korean printing...”

Thomas F. Carter,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New York; Ronald Press, 1955) p. 229.

79) 拙著, “東西洋 初期活字 印刷方法에 관한 比較研究”, 「國會圖書館報」第22卷 第4號(1985), pp. 5-16.

問의 畢昇의 膠尼活字와 Gutenberg 직전의 Coster의 木活字를 들 수 있다. 또 기록 자체가 훨씬 후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技術이 보다 초보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鐵鑄法⁸⁰⁾도 있으므로 혹시 그러한 方法이 존재했었던지도 모른다. 그러나 活字鑄造가 갖는 과정, 즉 刻印器(puncheon), 字母(matrix), 活字의 鑄造를 생각할 때 前者 2가지는 우선 活字의 材料부터 金屬과는 판이하여 刻印器의 역할이 활자 자체가 되고 있으며 後者의 경우도 字母 자체가 鑄型이 되는 지극히 초보적인 방법에 의해 활자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意義에서 癸未字는 印刷史를 다루는 모든 著述에 크건 작건 간에 반드시 다루어지고 있으며⁸¹⁾, 技術上 朝鮮朝 으뜸이고 Gutenberg活字에 역시 先行된 甲寅字보다도 世界印刷史上 《놀랄만한 活字印刷術의 달성》⁸²⁾이라는 칭송을 받는 것이다.

다만 그들 도서들 모두, 간혹 일부 우리 학계에서 논의되듯, 韓國의 活字印刷術이 西洋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입되었다고는 전혀 생각치 않고 있다. 東洋印刷史에 비교적 정통하면서 호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Carter도 東洋이 종이, playing card, 紙幣, 板畫, 木板 등에서 西歐에 영향을 미치고, 韓國의 活字印刷가 中國과 日本에 영향을 주었음을 분명히 하였으나 西歐에의 영향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⁸³⁾

西歐측의 입장에서 또 한번 이 十萬餘字의 鑄字에 대해 의미를 주는 점은 그 사용 言語와 文字가 活字印刷術에 가장 어려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⁸⁴⁾ 즉 表意文字인 漢字의 구조가 大小文字를 몇 개씩 구조한다 해도 획이 단순한 26개의 Alphabet의 구조에 비할 바 없이 복잡하다는 점은

80) 「東國厚生新錄」抄本, 鑄字條, 鐵錄.

81) 拙稿, “朝鮮朝 活字鑄造 및 文獻刊行의 綜合的 評價”, 『圖書館學』第9輯(1982), p. 54. 註 2)를 참고하고 다음 도서를 추가할 것.
Svend Dahl, *op. cit.* p. 92.

Otto W. Fuhrmann,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Reader in the history of books and printing*, ed. by Paul A. Winckler, (Englewood, Colorado: Information Handling Services, 1978) pp. 245-246.

82) “...Une étonnante maîtrise de l'impression à caractères mobiles.” *Le Livre*,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1972) Préface.

83) T.F. Carter, *op. cit.*, pp. 231-232, 240-242.

84) *ibid.*, p. 233.

S. Dahl, *op. cit.*, pp. 91-92.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한번 活字를 구조할 때 癸未字가 10餘萬字, 甲寅字가 20餘萬字⁸⁵⁾, 整理字가 30餘萬字⁸⁶⁾였던 데 반해 Gutenberg가 聖經을 인쇄하기 위해 구조한 것은 同一活字, 略字, 重複活字, 連結活字 및 符號를 포함하여 290個에 불과했던 것이다.⁸⁷⁾

이상 癸未字 자체가 갖는 意義는 충분히 설명되었으리라 본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관점은, 특히 西歐則의 視點이지만 書籍院의 設立이라든가 癸未字 鑄造時의 太宗의 旣에서 볼 수 있는 近代的이고도 民主的인 思潮의 表出이다.

이 두가지 사실에 대해 M. Courant이나 T.F. Carter가 다룬 주제는 韓國이나 中國의 印刷였으므로 보다 상세히 다루었다 치더라도⁸⁸⁾, 西洋印刷史를 다룬 브리튼이 書籍院의 設立문제와 1403年의 太宗의 旣을 引用하던서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은⁸⁹⁾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暗黒時代(Dark Age)라 칭하는 中世의 말엽, 1400末 1500初의 西歐封建社會와 對比하여 「活字와 圖書印刷의 업무를 맡은 圖書의 部署」가 國家의 臣僚에서 選擧되었다든가 「百姓으로 부터의 收斂이 不當하니 朝廷의 大小臣僚들이 活字鑄造의 비용을 負擔하라」는 國王의 命令은 確實히 西歐人에게 《진실로 崇高한 禮의와 崇高한 행동》⁹⁰⁾으로 받아들여지는 충격적인 사실인 것이다.

이밖에도 그 意義로서 생각해 볼 것은 癸未字本의 發行部數와 鑄字所에서의 販賣問題를 할 수 있다.

發行部數는 圖書의 供給과 需要를 單적으로 表現해 주는 것으로서 한 시

85) 『世宗實錄』, 卷 65, 3v.-4r.

86) 『世宗實錄』, 卷 44, 17r.-v.

87) Catalog of an Exhibition organized by the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no16.

88) M. Courant, *op. cit.*, vol. 1, Introduction, XLIV-XLV.

T.F. Carter, *op. cit.*, pp. 224-225.

89) M. Audin, *op. cit.*, p. 93.

Otto W. Fuhrmann, *op. cit.*, p. 245.

Lucien Febvre et H.J. Martin, *L'apparition du livre*, (Paris; Albin Michel, 1958 et 1971) pp. 108-109.

90) "Truly a noble sentiment and a noble deed!" Otto W. Fuhrmann, *op. cit.*, p. 245.

대의 圖書文化를 측정하는데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다. 본디 우리나라의 古印刷의 발행부수는 朝鮮初期부터 末까지 별 변동 없이 대략 그 面數와 반비례하여 100~500部 정도의 별로 많지 않은 편이었다.⁹¹⁾

太祖—太宗年間 분명한 발행부수를 표시한 것은 「乘船直指錄」 300部와 平壤府에서 간행한 「朱文公家禮」 150部 밖에 없으나 이에 準하여 평균 100部는 넘었을 것으로 보아 무리는 아닌 듯 싶다. 癸未字의 1日 印出量이 1日 數紙에 불과했었다는 사실과 이후 인쇄술이 발전하여 1日 印出量이 40餘紙에 달했던 世宗年間の 發行部數가 大學大全등 6種이 50, 兵書 60, 曆錄 100, 直解小學 200, 資治通鑑 5~600, 六典 및 元六典 800에 이르렀던 것과는 비교하면⁹²⁾ 그다지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서 建國初 새로운 圖書文化를 이루려는 太宗의 의지가 돋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鑄字所에서의 도서판매 문제는, 太宗 10年 2月 「始令鑄字所印書籍鬻之」⁹³⁾의 기록에서 논의되고 있다.

圖書의 販賣, 즉 商業本의 의미는 圖書의 發達과 函數관계를 가진 것으로, 西洋의 경우를 살펴볼 때 B.C. 5C에 아테네에 이미 圖書販賣所가 있었고 Xenophon의 著述인 「Anabase」에 의해 商業本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B.C. 3C Alexandria 도서관 시대에는 더욱 확장되어 圖書館藏書를 위한 購入과 판매를 위한 筆寫本의 複本이 유행하였다.⁹⁴⁾ 또 尙武主義를 숭상했지만 希臘의 文化를 받아들하려고 노력했던 Roma時代에도 주로 希臘移住民에 의해 시작되어 도서의 상업활동이 크게 발전되었으며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bibliopola로 불리우는 書籍商은 특별히 훈련된 litterati로 불리우는 노예를 양성하여 圖書製作에 힘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으로 Roma時代의 商業本은 큰 도약을 하게 되어 각 지방마다 書店이 융성하고 본격적인 出版業이 형성되었던 것이다.⁹⁵⁾

그러나 中世에 들어서면서 文化의 暗黑期답게 圖書館이나 圖書文化가 쇠

91) Lee Hee-Jae, *op. cit.*, pp. 259-260.

92) 拙著, “世宗年間の……” p. 205.

93) 「太宗實錄」, 卷 19, 11r.

94) S. Dahl, *op. cit.*, pp. 21-22.

95) *ibid.*, pp. 27-28.

되하고 圖書의 商行爲도 수도원이나 귀족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全無하게 되었다가 15C 르네상스와 印刷術의 발명과 더불어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만한 商業圖書의 流通으로 先進文化를 이룩해 나갔던 것이다.⁹⁶⁾

이렇듯 文化와 직결되어 있는 圖書의 商業活動이 全朝鮮朝를 통해 거의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고⁹⁷⁾, 따라서 鑄字所에서 書籍을 팔도록 하라는 太宗의 命은, 비록 그 후 얼마만큼 活動이 형성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당시로서는 東西洋을 통해 획기적인 近代思想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V. 結

本考가 다룬 朝鮮 建國初의 印書文化에 대해서는 既存의 좋은 논문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그것이 世界印刷史上 차지하는 위치와 意義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다.

무엇보다도 太祖—太宗年間의 印書文化의 핵심은 역시 癸未字에 있는 것으로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活字鑄型을 통한 實際的이고도 實用的인 도서의 大量生産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은, 技術面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있어온 各 活字들이나 그 직후에 나온 量質의 金屬活字들 보다 더 큰 評價를 받게 되는 것이다.

本考에서는 이 외에도 書籍院이나 太宗의 命이 갖는 近代的이고도 民主的인 의미라든가 發行部數 및 圖書販賣문제 등에서의 意義를 처음으로 表出시켜 보았다.

언어인 結論은, 朝鮮朝 어느 시대를 통해서 어떠한 觀點에서건 印書文化가 갖는 長短點이 있겠으나, 적어도 太祖—太宗年間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때 그것은 최선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다만 論文의 전개에서 略해진 점도 있고 미비한 점도 많아 後日의 補完을 약속하며 이 방면 後學들의 활발한 研究를 기대하는 바이다.

96) L. Febvre et H.J. Martin, *op. cit.*, pp. 307-310.

97) Lee Hee-Jae, *op. cit.*, pp. 261-263.

參 考 文 獻

1. 「高麗史」
2. 權近, 「陽村集」
3.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625p.
4. 「東國厚生新錄」
5. 成俔, 「慵齋叢話」
6. 孫寶基, “韓國印刷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Ⅲ,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0, 325p.
7. 尹炳泰 編, 「韓國書誌資料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256p.
8. 李光麟, “李朝初期의 製紙業”, 「歷史學報」10輯, 1965, pp. 1-37.
9.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10. 李姬載, “東西洋 初期活字 印刷方法에 관한 比較研究”, 「國會圖書館報」第22卷 第4號, 1985, pp. 5-16.
11. _____, “世宗年間 印書事業에 관한 綜合的 考察”, 「韓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魯山劉元東博士 華甲紀念論文集—서울: 正音文化社, 1985, pp. 181-208.
12. _____, “朝鮮朝 活字鑄造 및 文獻刊行의 綜合的 評價” 「圖書館學」第9輯,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2, pp. 53-74.
13. 張秀民, 「中國印刷術的發明及其影響」, 北京: 人民出版社, 1958, 208p.
14. 鄭道傳, 「三峯集」
15. 「朝鮮王朝實錄」
16. 千惠鳳, “癸未字와 그 刊本” 「書誌學」第6號, 1974, pp. 1-27.
17. _____, 「韓國古印刷史」 서울: 圖書館學研究會, 1976, 331p.
18. AUDIN, Maurice, *Histoire de l'imprimerie*, Paris; A. et J. Picard, 1972, 480p.
19. CARTER, Thomas F.,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New York, Ronald Press, 1955, 293p.
20. Catalog of an Exhibition organized by the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22. COURANT, Maurice,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Ernest Leroux, 1894-1901, 4 vol.
23. DAHL, Svend, *Histoire du livre*, Paris, Edition Poinat, 1967, 348p.
24. FEBVRE, Lucien et Henri-Jean Martin, *L'apparition du livre*, Paris; Albin Michel, 1958 et 1971, 558p.
25. LEE Hee-Jae, *La typographie coréenne au XVè siècle*, thèse de doctorat de 3è cycle, L'Université de Paris VII, 1981, 316p.

-
26. *Le livre*, édition de Bibliothèque Nationale, Paris, 1972, 225p.
 27. MARTIN, Henri-Jean, *Histoire du livre*, Paris, BN., 1964, 2 vol.
 28. *Reader in the history of books and printing*, edited by Paul A. Winckler, Englewood, Colorado; Information Handling Service, 1978, 406p.

LA SIGNIFICATION DE LA CULTURE DU LIVRE IMPRIMÉ AU DEBUT DE LA DYNASTIE DE CHOSŎN

LEE HEE-JAE

Au début de la dynastie de Chosŏn, qui représente une période de la règne des rois T'aejo et T'aejong, il fallait établir et codifier la nouvelle politique nationale, et c'est dans ce contexte que les caractères kyemi, qui ont joué le rôle très important dans l'histoire de la typographie mondiale, furent créés.

Le sujet de ce mémoire n'est qu'une énumération des faits historiques de l'édition ou de l'imprimerie dans cet époque, mais une recherche sur la vraie signification de la culture du livre imprimé.

Donc, on peut étudier ici; d'abord, les activités de l'imprimerie à l'époque du roi T'aejo et du roi T'aejong, et enfin, la signification et le bilan synthétique de ces activités, surtout des caractères kyemi sur le point de l'histoire de la civilisation mondiale.